

자료명	2026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엠바고	2026년 10월 22일(목)자 조간(통신, 인터넷 등은 10/21(수) 12:00부터)
문의처	유통물류정책팀 이승훈 팀장(010-4284-0215, 02-6050-1510), 염민선 연구위원(1513)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주춤’

- RBSI ‘92’(3Q) → ‘88’(4Q)...신중해진 가게 씬씀이, 선택적·절약형 소비 확산 등 복합 작용
- 업태별 희비 엇갈려...백화점·대형마트 ‘선방’, 온라인쇼핑 ‘상승’, 편의점·슈퍼 ‘약세’
- 상의, “소비 패턴 변화와 업태간 경쟁 심화로 단기 체감경기 반등폭은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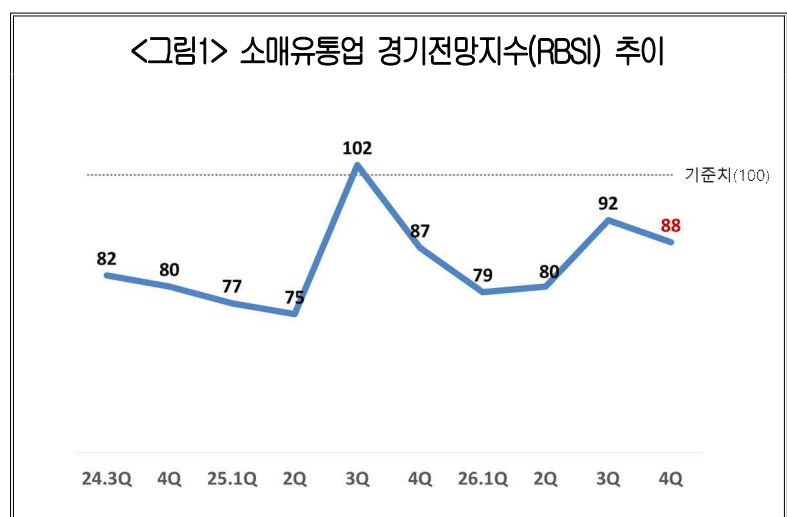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등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는 지난 3분기(92) 대비 4포인트 낮은 ‘88’로 집계됐다.

RBSI는 유통업계의 당해 분기 대비 다음 분기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 대비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 3분기 여름 휴가철과 추석 특수 기대감으로 반등했던 경기전망은 4분기 들어 다소 주춤했으나, 최근 5개년 평균치(83)보다는 상회하며 급격한 경기 위축보다는 완만한 조정 국면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이번 지수 하락에 대해 ▲신중해진 가게 씬씀이, ▲선택적·절약형 소비패턴 확산, ▲편의점 등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실제로 4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203개사) 중 70.0%는 ‘신중해진 가게 씬씀이’를 최대 요인으로 꼽았으며, 연말 대목 효과 부진(8.9%)이나 다른 쇼핑채널로의 고객 이탈 (7.9%) 등이 뒤를 이었다.

고객 소비 패턴과 관련된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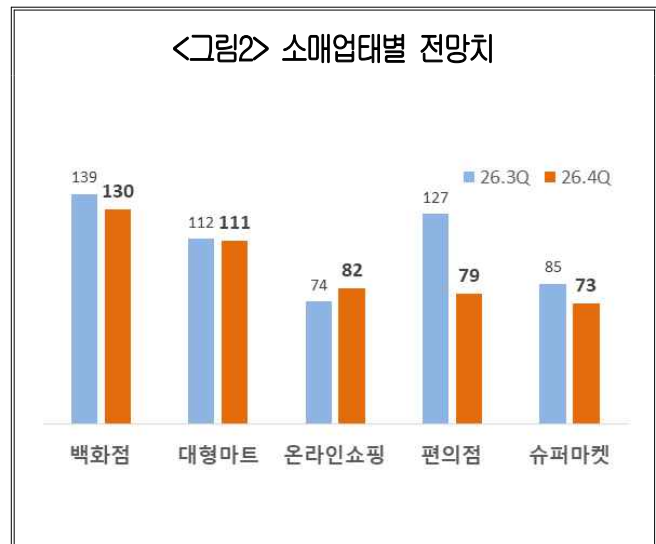


문에 ‘가성비 상품 선호도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했다’는 응답이 78.4%(비슷 45.2%, 증가 33.2%)에 달했고, 필요한 것만 골라 담는 ‘소량·목적형 구매 비중이 비슷하거나 증가했다’는 응답 역시 83.6%(유지 47.0%, 증가 36.6%)에 달했다.

[업태별 전망] 백화점·대형마트 ‘선방’, 온라인쇼핑 ‘상승’, 편의점·슈퍼 ‘약세’

백화점(139→130)은 전 분기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130을 기록해 업태 중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4분기에 단가가 높은 겨울 외투 판매가 본격화되고, 연말 선물과 송년 모임 등 계절 특수와 더불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외래관광객 : 1~9월 방한객 1,505만명(전년 동기 대비 +21.6%), 외국인 카드 관광 지출 15조 8449억원(전년 동기대비 +46.8%)(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대형마트(112→111)는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하며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11~12월 김장철 식재료 구매와 연말 모임 등 필수 먹거리 중심의 계절적 수요가 유입되는 데다, 신선식품과 식음료 코너 위주로 매장을 대대적으로 새단장한 점포들의 집객 효과가 기대감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쇼핑(74→82)은 8포인트 상승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한층 더 꼼꼼히 따지면서, 실시간 최저가 비교와 중복 할인 쿠폰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날씨가 쌀쌀해지며 집에서 장을 보는 온라인쇼핑 선호가 높아진 점이 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편의점(127→79)은 전 분기 대비 48포인트 떨어졌다. 역대급 폭염 특수를 누렸던 지난 분기의 기저효과에 더해, 기온 하강으로 야외 활동과 음료·빙과류 소비가 위축되는 동절기 비수기 진입이 맞물린 것이 지수 급락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 기온 : 여름 전국 평균기온 25.4°C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 역대 2위(기상청, 9.3)

슈퍼마켓(85→73)은 전 분기보다 떨어진 73에 머물렀다. 연말 시즌을 맞아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로 장보기 수요가 이동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승륜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4분기 소매유통시장은 연말 특수 기대감 속에서도 실속형 소비 확산과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며 업태별 온도 차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라며 “가계의 신중해진 씀씀이와 유통 채널 간 경쟁 심화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체감경기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6. 8.31(월) ~ 9.18(금)
- 조사대상 :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500개 소매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 조사내용 : 2026년 3분기 대비 4분기 경기 전망
- 조사방법 : 유통업체 패널 대상 유선전화 및 온라인(모바일) 조사
- RBSI 산출식 : (호전예상 기업수-악화예상 기업수)/응답기업수×100+100

※ 본 지수는 계절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계열 기준임